

금요 양성 2026년 2월 13일

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.

(#10) 권고에 집중 (권고 10)

<https://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admonitions/148-fa-ed-1-page-132>

[10. 육신의 제어]

¹죄를 지을 때나 해를 입을 때 자주 원수나 이웃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창세 3:12 창세 3:13 ²그러나 이래서는 안됩니다. 사람은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원수, 즉 육체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³그러므로 자기의 지배 아래 넘겨진 그러한 원수를 항상 손아귀에 집어넣고 그에게서 슬기롭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“그런 종은 복입니다.” 마태 24:46 ⁴이렇게 하는 한,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그 어떤 원수도 그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회칙의 머리말에서

“¹그런데 회개 중에 있지 않고 ²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지 않으며 ³악습과 죄악을 일삼고 육정과 자기 육신의 나쁜 욕망을 쫓아 다니며, ⁴하느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, ⁵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속의 걱정과 살아갈 근심에 싸여 세상을 육적으로 섬기는 남녀 모든 사람들, ⁶악마의 짓을 그대로 하고 악마의 자식들이 된 이들은 악마에게 불들려 ⁷눈이 멀었습니다. 참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.

“¹¹눈을 뜨십시오, 소경들이여, 그대들은 우리 원수들인 육신과 세속과 마귀에게 속았습니다.

¹²죄를 짓는 일은 육신에게 달콤하고, 하느님을 섬기는 일은 육신에 쓱니다.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악습과 죄악들은 “사람의 마음에서 솟아나오기” (마르 15:19, 마르 7:21) 때문입니다. ¹³그리고 그대들은 이승에서도 내세에서도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합니다. ¹⁴그리고 그대들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오랫동안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속았습니다. 그대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, 모르고 있는 그 날과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. 육신은 쇠약해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결국 육신은 쓰디쓴 죽음을 당합니다.

권고 10과 회칙의 머리말에 있는 두 단원(회개하지 않는 이들)을 읽으면서,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하시오. 저널에 생각들을 기록하거나 형제회의 소그룹에서 그 생각들을 나누어 보시오.

- + 남을 탓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잘못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대답이 되어 왔습니다. “그렇지요, 하지만....” “그게 내가 양육되었던 방식이에요.” 혹은 “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주거나 말해 준 적이 없어요.”라고 말하거나 또는 “그게 바로 나입니다.”라고 핑계를 댑니다..
- 프란치스코 성인은 권고 10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주시고자 하십니까?
- 이 충고에 대한 후속으로 회칙의 머리말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계십니까?
-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떻게 다른 사람 탓하려는 유혹에 종종 빠집니까?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까?
- 어떤 프란치스칸 덕이 다른 사람을 탓하려는 유혹을 피하도록 도와줍니까?
- 남을 탓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?